

CC 생산자가 종란을 구입해 부화장에 위탁 부화하여 이용

— 사료·약품도 공동구매해 생산비 절감

이 동 회
<월간양계 편집국>

4월 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지난 4월 25일 (금)오후 기자는 긴긴 봄 가뭄 끝에 메마른 대지를 축축히 적시는 봄비를 맞으며 회색도시 서울을 떠나 경기도 풍덕천에 있는 본회 용인분회로 향했다. 초행이라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이에웅 분회장님과 용인분회가족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용인분회는 한때 그 활동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풍덕천내의 양계인이 한마음이 되어, 지속적인 양계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공동사업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범적인 분회이다.

81년 양계인 친목회로 발족하여

용인분회는 81년 9월 2일 판교풍덕회로 발족하여 82년 12월 27일 풍덕계우회로 개편되면서 사단법인 양계협회 용인분회로 등록하였다. 판교풍덕회 발족당시, 풍덕천내에서 양계업을 하고 있는 양계인의 친목도모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초대회장 이광수씨와 2대회장 임종호씨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회원들의 호응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관리할 조직력도 없었던 관계로 뚜렷한 활동은 물론이고 회원들에게



△ 이예웅 분회장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하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회는 활동없이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후 여러 갈래의 소단위 모임이 지속되다 85년 초부터 풍덕천내의 양계인이 하나가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현 이예웅 분회장은 각 모임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초기 발족 당시의 목적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재기의 용트림을 시작했다.

85년 2월 임시총회때 이예웅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예웅씨는 과거 분회의 활동이 미비했던 것은 회원간의 단합이



△ 용인분회 회원들

없었고, 뚜렷한 사업목표와 실천에 옮긴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회원단합 이상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전 회원이 한마음이 되도록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였다.

이에옹회장은 “용인분회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풍덕천내의 모든 양계인을 포용하여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분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신회원 가입문제는 회의를 열어 전 회원의 동의를 구하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현 용인분회의 회원은 모두 29명으로, 이들 회원은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였다”고 최종 필 부분회장은 덧붙여 말했다. 이에옹 분회장이 취임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사료 공동구매, 종란 사업(종란을 구입하여 부화장에 위탁부화함), 약품공동구입으로 회원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속리산 관광과 부부동반 망년회를 계획하는 세심함도 가지고 있다.

29명 회원이 40 만수 규모 길러

육계를 사육하는 29명의 회원들이 사육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40만수로, 사료는 월 500톤 정도 소비하고 있다. 이 분회장은 H사료회사와 직거래 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없애 사료가격을 낮춘 것은 물론, 공급회사측으로부터 사료의 품질관리 문제를 보장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료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마침 H사료의 이과장이 자리를 같이해 용인분회의 사료수급상황을 공급회사측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과장은 용인분회가 회사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용인분회는 포대당 300원, 월 소비량 500톤 전체로 따지면 600만원 정도 분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다. 공급형태는 벌크(Bulk)와 포대인데 사료가 전후기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대부분이 포대사료를 사용하고 벌크는 소수라고 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대단위 거래를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에 신경을 더쓰게 되고, 사료대금에 최대한 좋은 조건을 분회에 부여하여,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있다고 했다.

사료는 물론 약품·초생추도 공동 구매

종란사업은 올해 4월부터 분회에서 품종(A품

중)을 선택하여 몇개의 부화장에 위탁 부화함으로써 1수당 5원씩 싸게 거래해 그 금액을 분회 자산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약품은 용인과 가까운 수원에 있는 동물약품 상사와 입찰해서 여러면에서 좋은 조건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 분회장은 취임후 회원들의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피부로 느낄만큼 많은 변화가 있자, 분회의 기능 활성화를 재추진할 때 20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29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분회장은 “전체회원의 의견에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은 회원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분회장은 여러면에서 계획대로 잘되어가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기 보다는 회원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분회장은 회원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출하문제를 지적했다. 다른면에서는 협조가 잘되지만 출하에 있어 분회를 통한 출하는 30%밖에 되지 않고 70%가 개인출하라 한다. 그 이유는 용인이 서울근교 이어서 시장이 넓고, 과거부터 개인출하에 익숙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회장은 분회출하와 개인출하 가격이 거의 같으므로 가격 변동이 심한 육계의 출하 창구를

분회를 통해 일원화하면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출하창구를 일원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단합의지 높아

그리고 이분회장은 협회에서 분회에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에서 사료통계나 병아리 생산통계 등의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입추시기를 예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풍덕천 용인분회는 이제 막 비상하려 한다.

주변의 양계인들이 회원이 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풍덕천 회원은 자기 주장보다 전체를 위해서 일보후퇴할 때 그 모두가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단합의 의미를 알고 있다.

첫술에 배부러리 없겠지만, 한가지 한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모든 분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 회원이 되어야만 양계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협회가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라는 이예웅 부장의 말속에는 협회의 도움만을 받겠다는말은 결코 아니리라. 같이 노력하는 분발의 뜻이 담긴 힘찬 전진의 의미라 생각한다. ■

선물용 계란박스 공급

- 60개들이(기존난좌 2개 사용)
- 운반용이

구입문의 : 본회 사무국(☎ 752-3571~2)